

통일 칼럼

북한의 양극화 · 생활고 극심

최 근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성공담의 주인공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다. 평양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주민들의 삶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폐쇄된 북한 경제, 그 변화의 실상과 한계를 짚어볼 일이다.

북한은 평양의 뉴타운, 화성자구를 중심으로 조성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등 화려한 야경을 지난 5년간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웰스트리트저널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성공 사례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해 평양에만 1만 채의 신규 주택이 들어섰는데, 이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평양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대성백화점에서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다수 들어선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평양에서 나타나는



정복규
논설위원

변화만 놓고 보면 북한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경제를 움직인 진짜 동력은 따로 있다. 가장 큰 배경으로는 러시아와의 밀착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외화외 물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특수가 없으면 지금 같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기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평양의 눈에 띄는 변화가 북한 전체의 경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러시아 협력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이 일반 경제가 아닌 군수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다. 북한 주민 2,600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북한 시장에는 러시아산 말가루와 의약품 등이 유통되고 있지만, 가격이 크게 올라 일반 주민들은 쉽게 구입하기 어렵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북한의 환율과 물가 급등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 결국 국가가 자원과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동원·배분하는 기존의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방식이 점차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데다 평양과 지방간 격차를 비롯한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고환을 고물가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시스템이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복원되면서 동맹 관계가 만들어지고 대북 제재가 많이 무력화돼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글로벌 분업 체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개방하지 않는 경제를 운영하면서 국가가 고도화된 이 동원 체제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북한 경제는 최악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폐쇄된 경제체제에서 실질적인 발전은 어려워, 성장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독자재언

일상 파괴 ‘관계성 범죄’, 이런 행동도 처벌받는다

“헤어진 연인 집 앞에 잠깐 찾아간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오?” 일선 현장에서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듣는 변명이다. 짝사랑이나 과거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접근은 ‘구애’가 아닌 법의 심판을 받는 명백한 범죄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스토킹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첫째, 대표적인 것은 물리적인 접근이다. 상대방의 집,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얼굴만 보고 가겠다”며 퇴근길을 기다리는 행동도 명백한 범죄가 된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이다. 전화나 메시지를 넘겨, 수신 차단 상태에서 1원 송금 알림 메시지를 이용하거나 SNS를 지속적으로 캡처하며 감시하는 교묘한 수법 또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셋째, 물건 등을 이용한 간접적 접근이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집 앞이나 차량에 편지, 원치 않는 선물을 두는 행위 역시 스토킹이다. 연제는 가해자가 자신의 은신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교제 폭력 등과 결합해 중대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확인된 순간, 모든 접근은 멈춰야 한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엄단하기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와 ‘교제 폭력 삼인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치 않는 접근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 없이 112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

박재원 김제경찰서 신동주과대경사

우리 일상 위협하는 마약에 경각심 가질 때

최근 SNS를 통해 대낮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등이 굽은 기괴한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멈춰 서 있는 영상이 확산하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해외의 이른바 ‘좁비 마약’ 무약제들과 흡사한 모습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비록 해당 남성은 정밀 감정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건은 마약 범죄가 이미 우리의 평온한 일상 공간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을지 모른다는 전 사회적 불안감을 여실히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맞이하는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우리에게 더욱 무거운 의미로 다가온다.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시선에서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엄중하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마약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대와 20대 등 청년층이 마약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세대의 마약 확산은 한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환각 상태에서의 2차 강력 범죄나 물자 사고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흔들기 때문이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무약이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의 늪이 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마약 범죄 척결은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시민 모두가 내 주변을 살피는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주길 당부드린다. 주변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주저 없는 112 신고와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과 젊은 세대를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오해림원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사설

호암 한강수 서예전

호암 한강수 서예전이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1실에서 열렸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 서화들을 선보이게 되었다.

한편으로 맑은 얼음 위를 걷는 초심스러움과 때론 천리마를 타고 질주하는 과감함도 있었다. 그래도 온갖 심연(深淵)을 탐고는 싶었으나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또한 전시명 ‘비상에 나는’, ‘폐유’, ‘비탄’ 등 긍정과 희망의 의미를 별도 명명하려고 했다. 작가의 경우 무모하게 질주하던 삶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과 격변으로 정체된 일상을 이어가던 ‘서예’를 마추려 했다.

관련하여 ‘서화화서’ 과정을 밝게 되었다. 서여기인(書如其人),

인서구로(人書俱老), 서화동체 등 배움의 시간은 삼신수양은 물론 부족함을 보충하였다.

낙필(落筆), 기필(起筆), 운필(運筆), 수필(收筆)을 통해 일단의 상념이 붓끝을 거쳐 먹물 속에 묻히기도 했다. 팔다리가 절단된 상당수는 치료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사라진 신체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고 마치 정상적인 감각을 체험한다.

이처럼 신체가 없음에도 통증을 느끼는 현상을 ‘신체의 환상통’이라 하고 이는 뇌의 착각에서 비롯된다.

삶에 있어 ‘환상통’은 어느 순간 공허함, 무력감, 버거움, 나태, 고뇌 등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상실된 부분을 채움으로써 해소되기도 한다.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200억대 빚을 갚지 못한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 다섯 곳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흥정도 부회장이 직접 나와 사과했다.

흥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투자자와 임직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지난 6월 14일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 등 4곳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15일은 JTBC까지 회생 절차에 들어서자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주 JTBC의 206억 원 규모 단기 차입금 채무 불이행에서 촉발됐다. 디폴트 직후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출몰이 강등됐다.

특히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의

지난해 연결 재무표상 부채가 1조 5천억 원을 넘었다. 단기 차입금도 5천8백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 간에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방송 사업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거라고 하면서도 예외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차 재정 상황 유동성 위기인 것이고, 이것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한 달 안에 내려질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중앙 그룹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벌써부터 속삭이 고 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